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양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창간 20주년 기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의 잔치, 청지기훈련



그리스도의 교회(1차)

서로 사랑하자(2차)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3차)

2007년 1월 1일, 신년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힘있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자! 십자가를 지자!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자!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2월에 있었던 제1차 청지기훈련(그리스도의 교회, 겔 34:26)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 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겔 34:26)

이같이 분명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되어 더욱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생명이 쫓기는 봄날은 우리에게 더욱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6월 15일 금요일 저녁, 자칫 나른해지기 쉬운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열린 제2차 청지기훈련(서로 사랑하자, 요일 4:7~11)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우리의 중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사랑, 친밀한 사랑, 축복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3차 청지기훈련(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 합 3:2)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우리는 다시 한 번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영적 부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바른 일상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청지기훈련은 모든 성도,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의 잔치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 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합 3:2)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역사 속에 임하여 오셔서 정조를 보여 주신다고 예고하여 주신 날이다. 인간의 삶에는 아름다운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담과 이브의 사랑이 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불로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가장 고상하고 순수한 사랑처럼 소화시킨다. 이토록 험악하고 추악한 인간의 삶이 꼬리를 물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사 7:14; 눅 2:11)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크리스마스에 오신 주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기독교에는 임마누엘의 이름이 있다. 임마누엘은 의미 없는 비밀 단어가 아니다. 임마누엘은 정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 그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우리의 대상이 되신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임마누엘께 우리의 심자가 굳어질 때에 “나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사 26:3) 신약을 전체적으로 보는 한 가지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시 32:8)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곧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이다.(요 1:14)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넣으신 그 하나님께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오셔서 아끼를 먼저 주시며 말씀하신다.(눅 2:10~11, 14; 마 1:21~23)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가? 학생이 원하면 선생님은 와서 가르치신다.(요 10:10)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마 6:9~13)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기를 원하는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으신가? 주님의 삶을 바라보라.(요 14:9~10) 예수님은 버림 받고 비난 받으며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모두 아셨다.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는지를 보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임마누엘 주시다.(시 25:4~5) 더욱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생을 일주일로 생각해 보자. 월요일에 태어나서, 화요일에 세례를 받고, 수요일에 결혼하고, 목요일에 병들고, 금요일에 병이 심해져서, 토요일에 죽고, 주일에 장

크리스마스 메시지⑦ (금요찬양집회)

주께서 친히 정조를 주실 것이다

(이사야 7:10~16)

사도는 인생이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홀로 외로워 몸부림치다 떠나는 인생들이 다. 우리 모두는 아픔, 고난, 죽음을 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역시 이것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눅 10:4) 우리들은 임마누엘 안에 대담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고도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서 일을 진행시키시며 동정녀 마리아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때면 기억하는 날이 곧 크리스마스이다. 예수님은 친히 체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눅 19:10)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당시의 형편은 오늘날과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아기 예수께서 오시기엔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세상, 그러나 또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소나무를 짙어서 집안엔 나무를 놓고 기뻐하며 장식을 한다. 그러나 이 나무는 벌레 속에는 나뭇가, 마르기 시작하는 나무다.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이 크리스마스의 나무와 같은 자들이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명예, 좋은 집, 명품 등으로 장식하고 꾸미고 걸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뿌리에 연결시켜 주시게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계획을 따르지만 하면 더 이상 치장은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시 살아가기 때문이다.(고후 5:17)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아직도 죽은 나무에 장식하는 거짓된 삶을 계속하겠는가? 아니면 죽은 인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임마누엘이시다. 크리스마스는 오직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결혼, 직장, 자녀양육, 기쁨, 슬픔, 두려움)의 영역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다. 창조주, 전능하신 삼위일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바로 이곳에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 개개인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주께서 친히 정조를 이미 주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아멘.

GIVE ME THIS HILL COUNTRY

⁽⁶⁾Then the sons of Judah drew near to Joshua in Gilgal, and Caleb the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said to him, "You know the word which the LORD spoke to Moses the man of God concerning you and me in Kadesh-barnea.

⁽⁷⁾"I was forty years old when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sent me from Kadesh-barnea to spy out the land, and I brought word back to him as it was in my heart. ... ⁽¹³⁾So Joshua blessed him and gave Hebron to Caleb the son of Jephunneh for an inheritance. ⁽¹⁴⁾Therefore, Hebron became the inheritance of Caleb the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until this day, because he followed the LORD God of Israel fully. (Joshua 14:6-14)

After forty-five years, Caleb still beheld the hill country of Hebron with spiritual eyes. This was the land that the Lord God had told Moses to give to him as a special inheritance for his accurate report at Kadesh-barnea. How did he live for so long with this faith? His last forty-five years were not easy, living in the desert and watching everyone that walked out of Egypt die. He and Joshua were the only adult survivors. With such a hard life, he still kept on in his faith. His strength remained, just as it had the day that he and Joshua stood before all of Israel with their hopeful account of the Promised Land. Of the twelve investigators sent out, only Joshua and Caleb believed that if God was with them that they could have this place. When Moses died, Joshua became Israel's leader. At the appointed time, Joshua began dividing the land among Israel's tribes. It was a day of remembering, and although Caleb was now eighty-five years old, he asked Joshua to give him the hill country. Why did Caleb want such a difficult task? This was the land that ten other men saw as too high and too difficult to conquer. They were discouraged. This was the land filled with giants. Caleb was now a senior citizen. What motivated him to press on concerning this tough area?

Caleb remembered God's promise to him, "Then the sons of Judah drew near to Joshua in Gilgal, and Caleb the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said to him, 'You know the word which the Lord spoke to Moses the man of God concerning you and me in Kadesh-barnea. I was forty years old when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sent me from Kadesh-barnea to spy out the land, and I brought word back to him as it was in my heart.'" (vv. 6-7) Caleb's witness was still the same because his heart was still the same. Forty-five years prior, God told Moses, "But My servant Caleb, because he has had a different spirit and has followed Me fully, I will bring into the land which he entered, and his descendants shall take possession of it." (Num. 14:24) At that time, all of Israel was depressed and discouraged because they believed the majority, not the minority report. Caleb was different. He and Joshua told God's people, "The land which we passed through to spy out is an exceedingly good land. If the Lord is pleased with us, then He will bring us into this land and give it to us—a land which flows with milk and honey. Only do not rebel against the Lord; and do not fear the people of the land, for they will be our prey. Their protection has been removed from them, and the Lord is with us; do not fear them." (Num. 14:7-9) Caleb was full of strong faith. He stood on God's promise. The majority had a great giant and little God perspective, but Caleb had a great God and little giant view. The majority was problem conscious, but Caleb was power conscious. He never forgot God's promise. He was not part of the complaining or grumbling crowds. All his life, he was on his way to a better land.

Caleb remembered his own commitment to the Lord. He told Joshua, "Nevertheless my brethren who went up with me made the heart of the people melt with fear; but I followed the Lord my God fully. 'So Moses swore on that day, saying, 'Surely the land on which your foot has trodden

will be an inheritance to you and to your children forever, because you have followed the Lord my God fully.'" (vv. 8-9) Caleb completely followed God, not partially. He reminded Joshua of his full surrender, total commitment, and sincere dedication. He remembered how he stood apart from the crowd in victory. Do you remember the time you decided to follow Jesus? Do you remember how happy you were when you believed in Him? Where is your faith now? Have you left your first love? Jesus asked John to tell the church, "But I have this against you, that you have left your first love. Therefore remember from where you have fallen, and repent and do the deeds you did at first; or else I am coming to you and will remove your lampstand out of its place—unless you repent." (Rev. 2:4-5)

Caleb remembered God's faithfulness to him, "Now behold, the Lord has let me live, just as He spoke, these forty-five years, from the time that the Lord spoke this word to Moses, when Israel walked in the wilderness; and now behold, I am eighty-five years old today. I am still as strong today as I was in the day Moses sent me; as my strength was then, so my strength is now, for war and for going out and coming in." (vv. 10-11) Caleb knew his strength was from the Lord God. He knew God was with him. Even though he was old, he was ready to fight the biggest giants. He boldly stood before Joshua and said, "Now then, give me this hill country about which the Lord spoke on that day, for you heard on that day that Anakim were there, with great fortified cities; perhaps the Lord will be with me, and I will drive them out as the Lord has spoken." (v. 12) Caleb asked Joshua to give him the best blessing and the toughest work. He was not scared. He did not analyze the situation. As a senior citizen, he did not want to sit back and rest for his remaining years. He wanted to fight. God took care of him up to this hour. Grace had brought him safe thus far, so now he told Joshua to give him the greatest and toughest blessing. The Bible tells us, "Therefore, Hebron became the inheritance of Caleb the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until this day, because he followed the Lord God of Israel fully." (v. 14)

My dear friend, God looks at your heart. He looks at your sincere faith. Do you 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mind, and soul? This is what counts! If you have this faith, you can ask the Lord anything you want. Jesus promises,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will I do, s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Jn. 14:13-14) Where is your mind? If your mind is depressed and your views are stronger than the Bible, then forget it. Where is your heart? If money and the things of this world are centered in your heart, then forget it. Where is your faith, your first love, your salvation? If it is not with Jesus, then forget it. Caleb put God first. He remembered God's promises and faithfulness. He remembered his commitment to the Lord God. His faith made him see and understand things through the eyes of God, not man. His life reflected the glory of God because he practiced his faith! Amen. 🙏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⁶⁾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⁷⁾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가데스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도다 ...

⁽⁸⁾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렘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¹⁴⁾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렘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여호수아 14:6~14)



김성관 목사

45년이 지난 후에도 갈렘은 변함없이 헤브론 산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가데스바나에서의 정탐 보고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갈렘에게 주신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간직하며 살았을까요? 땅약을 전전하면서 함께 애굽을 빠져나왔던 자신의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던 지난 45년의 세월은 그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20살 이상의 사람들 중에 오직 자신과 여호수아만이 살아 남았습니다. 그런 험난한 인생을 보내면서도 그는 여전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기력 역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약속의 땅에 대해 여호와와 함께 희망에 찬 보고를 했던 그 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파견됐던 열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가 이르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줄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렘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갈렘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자원했을까요? 이곳은 다른 열 명의 정탐꾼들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이 곳에는 여전히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렘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거친 땅을 향해 도전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가데스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도다" (6~7절) 갈렘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네 종 갈렘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갠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 14:24) 그 때 당시, 소수가 아닌 다수의 보고를 믿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사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렘은 달랐습니다. 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밭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그의 함께 하신다" (민 14:7-9) 갈렘은 견고한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온 회중은 거인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여겼지만, 갈렘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거인을 작게 여겼습니다. 온 회중은 현실의 문제에 집중했지만, 갈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더 나은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갈렘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8~9절) 갈렘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좇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전한 복종과 온전한 임무 수행, 신실한 헌신에 대해 여호수아를 일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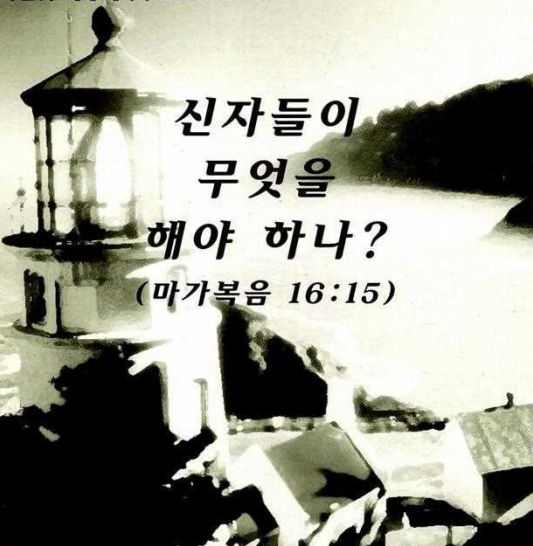
말씀하신 대로 생존케 하셨나이다

갈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오 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오 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0~11절) 갈렘은 그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대한 거인들과 싸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에게 여호수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시에도 그 날에 들으셨지나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찌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2절) 갈렘은 가장 큰 족보자가 가장 어려운 과제를 떠맡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노인이라는 이유로 뒤에 앉아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쉬고 싶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아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온종일 지킴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갈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크고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렘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14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 14:13~14)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여러분의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과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더욱 심하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첫사랑,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십시오. 갈렘은 하나님을 최후의 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10. 3.)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마가복음 16:15)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의 신앙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졌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는 신자들이 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온 세계를 향하여야 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신자들의 사명은 온 세계를 향하여야 한다. 온 세계의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신자들은 선교를 해야 한다. 선교는 신자들이 해야 할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다.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삶,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선교를 특별한 ‘그 무엇’으로 만들어 교회를 자랑하는 한 방편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교회에 해가 되거나 유익이 없을 때에는 가차 없이 선교를 중단해 버리고 있다. 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요 1:4) 예수님이 천국의 길, 진리, 생명이시다.(요 14:6)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하

심에 따라 온 땅 열방의 모든 족속을 향해 나아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행 1:8) “온 세계는 발이다”(마 13:38) 선교는 예수님이 없는 곳에 나아가는 것이다. 온 세계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없다면 지금 나아가자!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선교이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사라진 선교를 하고 있다. 이들은 선교지의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제공한 뒤에 복음을 전할 거라 말한다. 그러나 끝내 복음은 흐려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교는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른 것들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해야 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골 1:13~14) 복음이 단순하기에 선교도 단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신자는 ‘주님 안에’(in Him) 거할 때 참 신자로 거듭난다.(고후 5:17) 보혈로 거듭난 참 신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자!

모든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신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선교에는 차별이 없다!” 예수님은 철저히 소외되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요 4:7) 또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긴 최 많은 여인에게도 복음의 은총은 전해졌다.(눅 7:47~48) 또한 복음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져야 함을 예수님은 강조하셨다.(마 19:13~14) 특히 이 복음은 인종을 초월하여 전해졌다. 사마리아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성령님은 풍악로 갈 것을 명하셨고, 빌립은 풍악에서 에도피아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행 8:27)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 왜? 그런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틈만 있으면 욕심을 따라 세상을 향해 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보혈의 은총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사명은 온 세계를 향하여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 선교는 신자들의 삶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단교노소, 신분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사명이 신자인 바로 우리에게 있다. “만왕의 왕 된 예수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시니 참 구주시로다!” 이 복음 전하자!”(찬 273장) 아멘.

21교구는 인천, 김포, 강화, 시흥, 광명, 부천 등 경기도 서부 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225세대 565명의 성도가 6개 지역, 24개 구역, 7개 남녀 전도회, 6개 남성 구역으로 나누어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는데 2~3시간이 소요되는 먼 거리지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여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교회에 출입할 수 없는 형태의 성도님들과 많은 예비대부, 사립부 지체들이 매주 기쁨으로 교구 모임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으신 수요1부 예배 이후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은혜가 풍만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저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요일 3:1)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온 교구 식구들이 섬김으로 사랑의 줄로 하나되게 하고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금요찬양회에 참석하여 성탄 찬양을 하며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다시 한 번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가슴도 뜨거워집니다. 계속되는 단기선교에 잘 준비된 3개 팀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는 팀이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선교현지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21교구

지난 7월에는 교구 영성훈련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교구로 다시 한 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교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해오던 형식과 외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감격하며 회개하는 온 교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요일 3:23) 총동원 전도집회에 태신자, 새가족 그리고 그동안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천교를 하였습니다. 21교구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새롭게 태어난 교구로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 충성된 모습으로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교구로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혈로 씻기사 정한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21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시편 118:20~23)



정청길(김포, 21교구장)

멈출 수 없는 성령의 불길,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단기선교

Beyond This world



2007년이 이제 두어 달 남았습니다.

아직도 '선교를 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다면,

믿음의 눈을 열고 한때 선교를 주저했던 그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증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 선교지는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축조전도와 노방전도를 하며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 어른에서 어린 아이까지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잘 받아들였다. 이곳에 주님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명자 집사)

*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영적으로 힘들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여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였다. 이들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영적 싸움을 하게 하였다. (김종희 권사)

* 언어를 완벽히 외웠다고 교만했던 저는 첫날부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 사역을 하면서 온전히 못한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확신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염새봄 학생)

* 농촌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영혼이 싸우며 예수님의 군사 되어 복음을 전할 때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린다. (정인선 집사)

* 빈부의 차이가 무척 심했고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였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한마디로 불쌍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환경이나 조건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여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제일 마음 아왔다. (원화자 권사)

* 교통 사고로 온몸을 움직이기 힘든 40대의 여성에게 우리 복음을 전할 때 그녀는 마음을 열고 "아멘." 하고 복음을 영접했다. 감동! 그 자체였다. (최형동 집사)

* 오직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안타까웠습니다. (박영진 성도)

* 결과에 연연하거나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며 작은 손짓으로 전도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서툰 나의 손짓에도 감사하게 하였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 주님, 잠든 나를 또 다시 부르시

고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께 감사한다. (박유미 집사)

* 모든 선교사역의 계획과 과정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선교였다. 숙소, 차량, 사역지, 어느 것 하나도 처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지쳐 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선교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오명자 집사)

*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임을 깨닫는 선교였다. (김정희 집사)

* 십자가 앞에 철저히 죄인 된 나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고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손향아 집사)

*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끄시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조용민 성도)

* 이방 종교의 세력이 지배적이었던 지역의 아이들이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도 있었고, 우리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게 이끄시는 역사하심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동욱 학생)

*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뿌린 씨앗은 비록 작지만 성령님이 크게 키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광우 학생)

* 단기선교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증거하며, 기쁨과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홍이지 집사)

*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전도지를 읽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의 표정과 마음이 밝아지고 한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였다. (김국진 집사)

* 처음 가는 선교, 나도 이제 선교를 가는구나! 보내는 자가 아닌 내가 직접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

는구나! 언어를 배우고 익히며 과연 이 말을 그 나라에 가서 어느 만큼 사용하고 전하고 올 수 있을지 우려가 되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들을 만나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김영일 집사)

* 우리가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그들이 우리보다 좋은 음식을 못 먹거나 못 입거나 교육을 못 받거나 가난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새 생명 얻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때문이어야 한다. (조은비 집사)

* 선교지에 도착하자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은혜가 되었다. (이미애 집사)

*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려 우리는 나갔다. 가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짜증도 났지만 그래도 주님이 명하신 일하기에 순종했다. 우리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먼저 사람들을 전도했다. 순간 순간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 주셨다. (이희진 학생)

* 선교는 믿음이 좋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프간 사태와 겹쳐서 선교를 떠나기 전 약간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지만 주님은 이러한 인간적이고, 낙담한 생각을 부끄럽게 하셨다. 정말 황금 어장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 (오민선 학생)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 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9일(토) ~ 10월 6일(토)	17·24 교구 연합	조문수

현재 사역 중인 선교 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1일(월) ~ 10월 10일(수)	22 교구	홍원석
10월 2일(화) ~ 10월 9일(화)	아멘 천령대 ②	김목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한다

신앙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50년이 되어 간다. 어머니 태증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일 성수하러 살아왔다. 연륜이 깊다고 믿음이 깊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일을 거르지 않고 서울에 있을 때나 출장 중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순서에 따라 주일을 성수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요즘 예수님을 알아 가면서 많이 바뀐 내 자신을 느낀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 8:34) 함으로 나에게 새롭게 조망되는 말씀이다. 이를 위해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작년에 단기선교를 준비하다가 결국 포기해야 했다. 나의 뜻이고 바람이었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걸 몰래야 깨달았다. 왜냐하면 올해는 단기선교를 준비하는데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과정을 순숙히 진행시켜 주셔서 두 번이나 선교를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이 알려시도록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행하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다.

나는 요즘 아주 기쁘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비록 실천이 어렵고 많은 부분을 비껴가지만 옳은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말씀을 알게 하셔서 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내 경험이나 성령님의 명령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님의 뜻과 나랑 나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는 현재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직접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에 써 주신 것을 감사한다. 모든 일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알게 노력하게 하심으로 감사한다. 그 외에도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다. 앞으로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터인데,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기 위해 나를 더 내려놓으려 하는데, 더 나를 부인하려 하는데, 나의 십자가를 지려 하는데, 말씀을 알리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우중호(집사, 6교구)

너는 내 것이라!

늦깎이 공부로 힘들텐 외롭던 유학 시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성당에 다녔습니다. 저는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많은 사람의 관심과 시선을 자양분 삼아 교만과 자존심으로 툭툭 뭉쳐 살았습니다. 제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과는 눈조차 맞추려 하지 않았고, 자아도취와 허영에 물든 저는 미사포 곁에 쓰고 미사 드리는 행위 역시 제게 어울리는 우아한 종교인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건 자신감이 상하는 나약한 행위였고, 종교는 죄의식만 돋우는 생가신 존재로 버리지도 끌어 안지도 못하는 예물 단지였습니다. '네가 죄인'이란 말에만 분노까지 덧붙여 콧방아 무시하였고, 성경 구절구절을 찾아가며 "이치에 맞네, 안 맞네,"하면서 불평 불만을 노트에 깨알처럼 적어놓았습니다. 저를 전도하려는 개신교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호통쳐야하였고,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께 "내게 해 준 게 뭐 있냐?"며 하늘을 향해 주먹을 들어대던 별레만도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저를 거머쥐어 주일예배에 끌어다 앉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몸 속의 물이 다 빠져나간 줄 착각할 만큼 눈물, 콧물 솟으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이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 변했습니다. 교회를 일 주일 내내 가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었고, 아예 법으로 교회를 일 주일 내내 다니게 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할 정도로 교회 가는 발걸음이 즐거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큰 구원의 비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주님과 의 뜨거운 첫사랑에 푹 빠져 버렸습니다.

귀국 후 주님만 섬기며 선교할 수 있고, 새벽기도회에 다닐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총현교회에서 1번 거리에 직장을 주시고 집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자상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다른 복음을 들기 전, 위임목사님의 "예수님이 진짜"라는 참 복음만을 듣게 해 주신 10년 여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난 후의 우리의 삶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어린 아이처럼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고픈 예수영어로 만들어 주신 그 일은 진정 기적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네 것이라"(사 43:1)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외로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를 '예수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이름으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나의 영원히 사는 길인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임금순(집사, 2교구)

노란 책 좀 챙겨~

"오늘 금요일이니가 어디 가지 말고 곧장 와. 숙제 해놓고 금요찬양집회에 가자." "엄마, 우리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안 돼?" "집에 있으면 뭐하니. 엄마 없을 때 게임하려고 그러니?" "엄마, 아니야. 우리 책 읽고, 숙제할 거야." "그래도 가야 돼!" "엄마, 그럼 찬양 끝내면 우리 나가서 놀게." 좀 양보하는 척하면서 아이들은 얼른 말씀 듣는 시간을 보내고 보고하고 한다. 아직 얼마, 아빠 따라다니는 정도니 아직 시간이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해서 "찬양하는 시간은 좋아?"라고 물어본다. "엄마, 난 <할렐루야>가 좋아!" 한다. 이 때쯤이면 형에게 질세라 작은 아이는 외자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댄다. "지난 번에 우리 반에서 <할렐루야>를 수업 시간에 했는데, 알지? 우리 반에 나하고 총현교회 다니는 시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둘이 잘 했다고 선생님께서 칭찬받았잖아?"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랑을 하지만 사실 큰 아이는 노래를 그다지 잘 하는 편은 아니다. 그런데 금요찬양집회에 찬양을 할 때면 그 시간만큼은 큰 소리로 신나게 부른다. 자책도 해 가면서 말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이 평생 동안 지속되길 기도한다.

금요찬양집회에는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아이들과 동행한다.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주일에는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할 하다 보면 오히려 4시쯤 되어서 서로 얼굴을 보게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고 금요찬양집회에 같이 가려 한다. "애들이 금요찬양집회에 가자. 그리고 엄마 아빠 노란 책 좀 챙겨~." 우리 교구 찬양집 표지 색깔은 노랑다.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색깔이다. "엄마 내가 들고 갈게." 작은 아이는 벌써 노란 책을 열구리에 챙겨 끼고 나간다. "물러 브레이드를 타고 가면 안 되냐? 사람을 받으면 왜 바로 먹으면 안되냐? 왜 형은 차 뒷자리를 다 차지하고 놀냐?" 이런 저런 말들로 육신적인 해가며 금요일의 교회 체험을 토크하고 우리 가족은 말씀과 찬양의 은혜로 가득한 금요찬양집회에 간다.

조인희(집사, 7교구)

사랑의 편지①

십자가 복음만이 진짜인 것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성관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떤 찬양대로 봉사하다가 독일에 유학하고 있는 류승언입니다. 떠날 때 두 사람을 재대로 못 드리고 왔는데, 늘 기도해 주시고 만부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반은 어떤지요? 저는 이곳에 유학해서 참으로 목사님 설교가 그림입니다. 교회에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고 그저 어떤 사색이나 유학의 안에 살고 모임 정도로 전락에 있는 현실을 봅니다. 회개에 관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없는 기록 신앙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진짜인 것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에 주시고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주간중언>과 주보, <중언의 만나>를 통하여 교회 소식과 목사님 설교를 접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에 독일에 있지만 큰 한국에 잠시 다니러 예정입니다.

다. 벌써부터 주일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금요찬양

집회에 갈 상상을 하면 마음이 정말 좋습니다.

건반 유익하시고 항상 목사님을 위해 기

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쁨

과 평안이 가득하세요.

독일에서 류승언 올림



☆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였던 나의 모습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뜻을 위해 설정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하며 나의 생각에 이만큼 섬겼는데, 탄 고만에 빠져 있던 약한 나의 모습 앞에 회개만이 있었습니다. (조종민 안수집사)

☆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나 자신이 부인되고 비워지고 인간의 방법과 지식과 지혜와 판단을 모두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성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김성호 안수집사)

☆ 아무리 자신을 살펴봐도 부족하고 내뿜을 것이라 고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생명을 내놓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성현 안수집사)

☆ 지금까지 저는 주님 앞에 참으로 무익한 종이였으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보람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좇아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보신 안수집사)

☆ 주님께서 나는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법과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또한 통회의 눈물과 회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장철환 안수집사)

☆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의 참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성령이 내 심정에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는 일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성현 안수집사)

☆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한 겉모습 나야갈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임을 깨

2007년 피택자로서의 고백 무익한 종에서 은총의 일꾼으로



현신하며,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철환 안수집사)

☆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과 주님과 산 교제가 없는 믿음의 생활이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을 되풀이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예수님을 힘껏 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종호 안수집사)

☆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부름 받은 청지기로서 온전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산을 가진 일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꾼,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예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여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김연태 안수집사)

☆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교육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다지 한 번 깊고 폭넓게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세밀한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파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심으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섬김의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김철환 안수집사)

*10월 19일, 금요찬양집회 시에 파택장로들의 주재발표(민음의 삶, 히 11:1~2)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양육부 9월 수료자

수화 칼럼 ③ 주기도문 4

예수님과 만남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 오늘날



2. 우리에게



3. 일용할



4. 양식을



5. 주옵시고



♥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늘 찬송 부르며 나를 부양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김은숙)

♥ 모태신앙이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것도 차도 게을러있었는데, 올케언니의 인도로 충언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했던 제 믿음을 잡아주시며 늘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조지애)

(민집국)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성령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성령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03	김동현	25	외선부	양승민(21)	1539	디현	25	외선부	김진희(7)
1504	이연진	9	중동부	유은경(20)	1540	윤미영	25	외선부	김진희(7)
1505	홍미연	4	한동부	박남배(1)	1541	황은호	7	한동부	조지훈(23)
1506	김지현	2	고동부	김태라(2)	1542	타미라	25	외선부	이진규(6)
1507	오연숙	1	고동부	장기순(3)	1543	최혜봉	12	한동부	김영희(6)
1508	양희재	2	한동부	권윤숙(2)	1544	김정희	12	마리아	
1509	신재선	2	한동부	류종태(1)	1545	류명애	15	전동부	박경희(15)
1510	박희순	1	한동부		1546	은혜성	3	전동부	
1511	이경문	10	원동부	강길재(15)	1547	신은진	20	대학부	정승진(22)
1512	신영애	20	한동부	심정애(2)	1548	이연영	6	한동부	권경애(14)
1513	지현	25	외선부	이영식(21)	1549	김진영	18	한동부	최예민(16)
1514	이희희	10	한동부	최세진(2)	1550	정승진	10	한동부	왕병진(22)
1515	이영문	10	원동부	이영희(2)	1551	정승진	10	고동부	유정선(22)
1516	김영훈	4	한동부	신영식(14)	1552	김진규	1	소망부	김정희(1)
1517	김진영	20	한동부	이영숙(14)	1553	조희희	1	한동부	이희희(1)
1518	김민정	7	한동부	최상기(124)	1554	송종기	7	한동부	홍장영(8)
1519	백기인	9	소망부	전영훈(2)	1555	이영경	7	한동부	홍장영(8)
1520	김영희	15	한동부	강주희(1)	1556	주교훈	18	초동부	
1521	최희경	20	대학부	송혜숙(20)	1557	박지훈	11	한동부	박석진(7)
1522	최성일	12	한동부	김상재(12)	1558	오성민	2	고동부	김태민(2)
1523	안영규	3	한동부	이화순(3)	1559	한호재	4	고동부	김태민(2)
1524	정영숙	23	한동부	김수현(2)	1560	박동현	22	중동부	이호선(22)
1525	게나	25	외선부	김영애(5)	1561	박영희	6	한동부	김진희(6)
1526	구미라	25	외선부	구승희(16)	1562	김정희	14	한동부	
1527	장재현	13	한동부	전병자(1)	1563	이예한	14	한동부	
1528	송아	25	외선부	이영희(11)	1564	양한지	14	한동부	
1529	오나	25	외선부	홍준길(2)	1565	양한지	12	한동부	
1530	소나	25	외선부	장종현(17)	1566	이영문	4	한동부	박복순(9)
1531	황은	25	외선부	황태숙(17)	1567	최종아	4	한동부	
1532	정영희	13	한동부	김순옥(16)	1568	김영동	21	소년부	이재욱(21)
1533	황영	25	외선부	박복순(16)	1569	김성희	22	한동부	김성희(21)
1534	손은지	17	한동부	나승원(1)	1570	김정희	14	한동부	이미주(14)
1535	김은진	9	한동부	양한희(1)	1571	이재현	7	한동부	
1536	홍	25	외선부	전옥희(7)	1572	유하나	7	한동부	
1537	피재	25	외선부	전옥희(7)	1573	사나	25	외선부	양은숙(12)
1538	함	25	외선부	김석영(7)					

* 중헌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